

지원자 미달 행정시장 공모... 결국 연장

도, 제주시 18일까지 연기... 서귀포시는 11일 마감 내달 중순 인사 예상... 행정시 업무공백 길어질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제주시장 개방형 직위 공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행정시장 공모에서 제주시장 응모자 수가 공모직 인사지침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제주시장 공모를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장은 당초 계획대로 11일 공모를 마감했다.

제주시장에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관여했던 A씨가 응모했다. 서귀포시장에는 정치인 B씨 등 다수가 응모했다.

제주도가 제주시장 공모를 연장하더라도 사전 내정설이 나돌고 있어 내정설을 철회하지 않는 한 '들러리 지원자'를 제외한 추가 응모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시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행정시의 업무공백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행정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상현 제주시 부시장·한웅 서귀포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가 8월 5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같은 날 단행할 예정인 행정시 하반기 정기인사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장 임명은 이달 18일 공모마감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와 도인사위원회 통

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할 경우 8월 중순 전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시장 임기는 2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응시가 저조해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인재들의 폭 넓은 참여를 통한 도민 대통합 실현을 위해 제주시장만 연장 공고를 결정했다”며 “서귀포시장인 경우 우편물 접수가 있어 15일까지 기다려 봐야 몇명이 응모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12일 (사)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이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주년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에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김병준 “윤 정부 출범은 제주 발전 기회”

(사)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개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맞게 됐으며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사)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이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주년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윤 정부는 지방시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선언했고, 시대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제인 센티브 등 보다 자유주의적 접근, 교육·문화 등을 중시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 지역의 잠재성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예로 제시했다.

또 “이제는 세만금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메가시티, 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경쟁하고 결합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각과 주민이익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시 아젠다포리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회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영철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허항진 전 제주대학교총장을 비롯한 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사)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앞으로도 계속해 도내·외의 정·관·학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홍보와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를 목표로 지난 2014년 1월 발족한 (사)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은 도내·외에서 1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 제시와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고대로그자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제주 전통순대 만들기(한림읍), 지역 명소 달력 제작(일도1동), 서당 체험과 제주어 교육(이도1동), 이주민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마을투어(봉개동), 용담 바닷길 모바일스탬프 투어(용담2동),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판매 장터 운영(구좌읍), 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 일부다.

제주시는 올해 26개 주민자치센터에 특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총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자치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은 1곳당 최대 340만원이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유사한 강좌가 개설되거나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중복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6개 주민자치센터 242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에 나섰다. 지역 특색을 반영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1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4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읍·면·동도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어디 숨었니?”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 그린뉴딜 ‘포레스트 시티’ 조성

기후변화 대응 인간·자연 공존 26개 사업 분야 501억원 확보

서귀포시가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포레스트 시티 조성에 착수했다.

시는 그린뉴딜사업으로 시민행복 포레스트 시티 조성사업(125억원)을 비롯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57억원), 산림일자리 확충사업(43억3000만원), 성산을 연안식생 조림사업(9억3000만원) 등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레스트 시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녹지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자연 친화적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지난해 사업비 66억원과 올해 59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시는 그린뉴딜사업을 비롯해 정부와 제주도정의 뉴딜정책과 연계해 ‘서귀포시형 뉴딜사업’ 48개·1732억원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지난 2년간(2021~22) 26개 사업에 예산 501억5000만원(국비 246억9000만원, 도비 252억원, 기타 2억

6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분야별 예산 확보 규모는 그린뉴딜 11개·305억4000만원, 디지털뉴딜 13개·185억9000만원, 휴먼뉴딜 2개·10억2000만원 등이다.

시는 디지털뉴딜사업으로 AI기반 차세대 스마트 파킹시스템(90억원), 숲속 그린 스마트 주차장 49억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활성화(15억3500만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8억3400만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1억1500만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에 친환경·공공형 ‘에콜리안’ 대중골프장 필요”

제주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위한 장기과제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공공형 ‘에콜리안’ 대중골프장(9홀) 유치에 적극 참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12일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도민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위한 단기과제(1~2년)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 서비스 다양화 및 고도화, 지역주민 역차별 해소, 도민 부킹(예약) 할당(쿼터)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중기과제(3~5년)로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골프장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대로그자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원을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Powerful

용량 : 20kg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U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